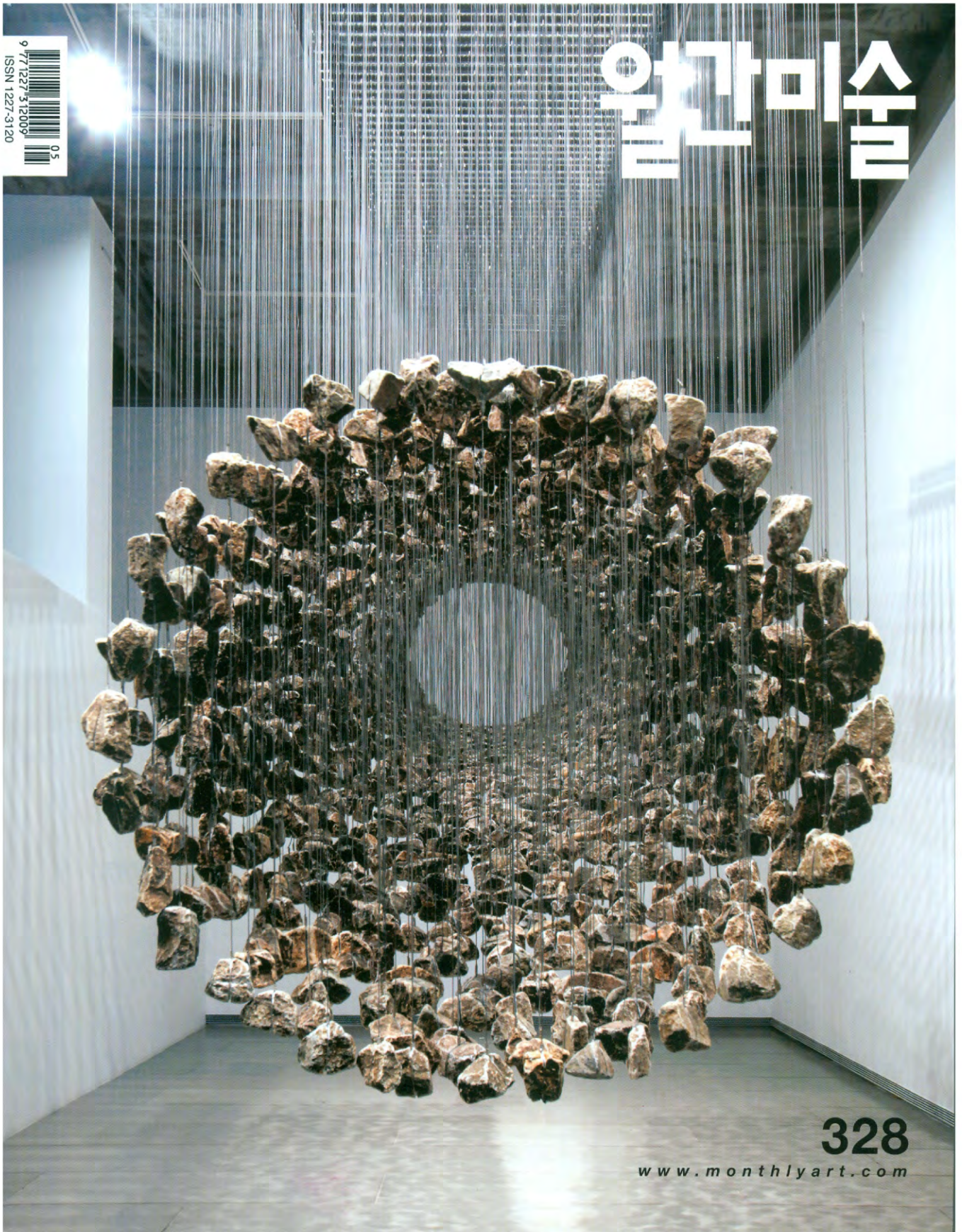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5

월간미술



328

www.monthlyart.com

이경민, "OLAFUR ELIASSON 당신의 움직임이 만드는 전혀 다른 변화," <월간미술>, 2012년 5월.



이경민, "OLAFUR ELIASSON 당신의 움직임이 만드는 전혀 다른 변화," <월간미술>, 2012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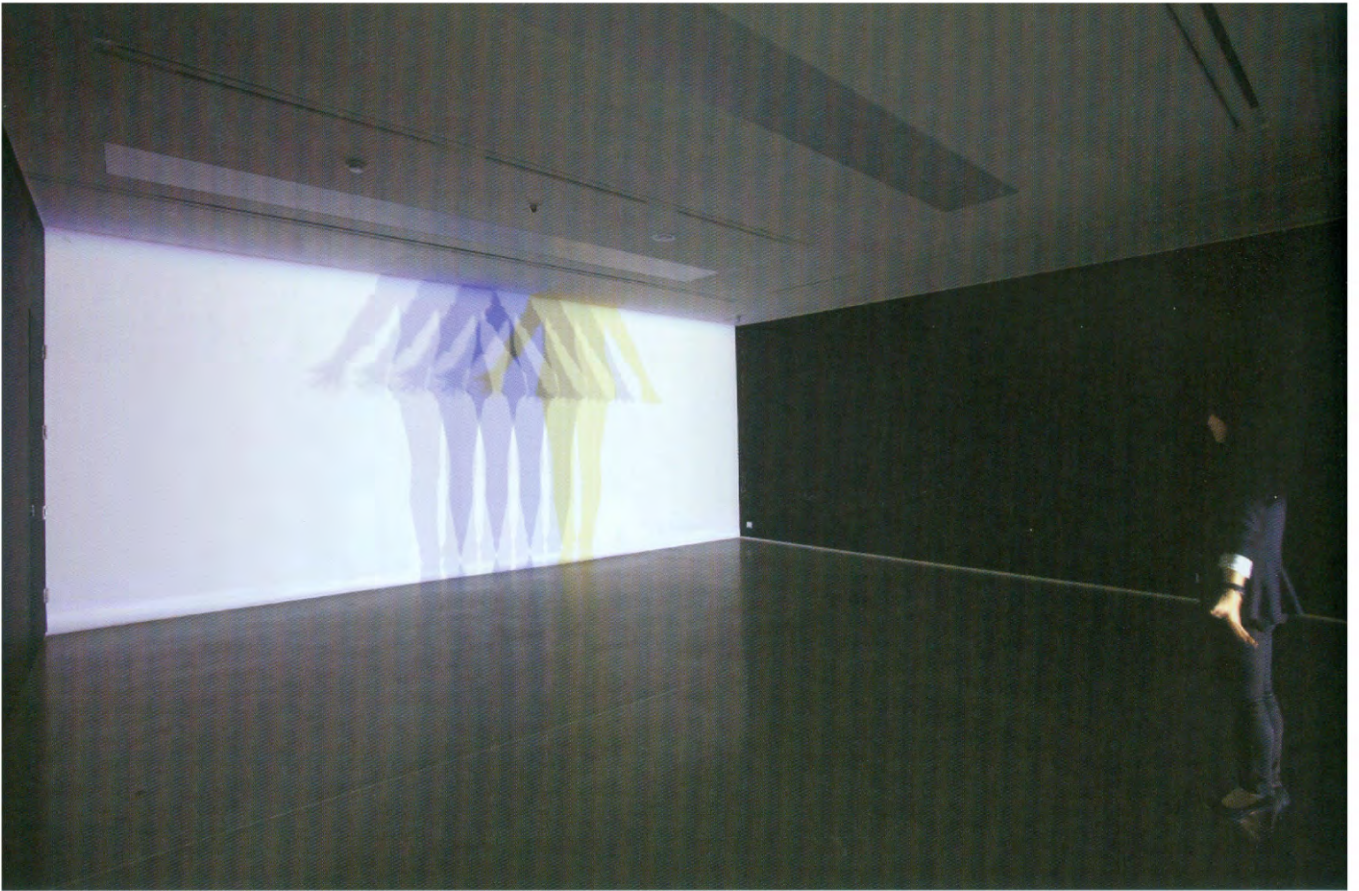


sight & issue

OLAFUR ELIASSON

당신의 움직임이 만드는 전혀 다른 변화

올라퍼 엘리아슨은 1967년 덴마크 코펜하겐 출생으로, 1995년 덴마크 왕립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름을 알린 그는 1995년 베를린에 대규모 스튜디오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시작한다.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 덴마크관 개인전 《The Blind Pavilion》과 테이트 모던 〈기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다. 대규모 회고전 〈Take Your Time〉은 2007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2008년 뉴욕현대미술관과 PS1 현대미술센터, 텔러스미술관, 2009년 시카고 현대미술관 등 미국 순회 이후 2010년 시드니현대미술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11년 코펜하겐 오르후스의 아로스미술관의 옥상에 달하는 구조물 〈당신의 무지개 파노라마〉를 영구설치하고, 아이슬란드의 하르파 레이크비크 콘서트홀과 콘퍼런스 센터의 건물 파사드를 헤닝 라르센 아키텍츠와 협력 디자인해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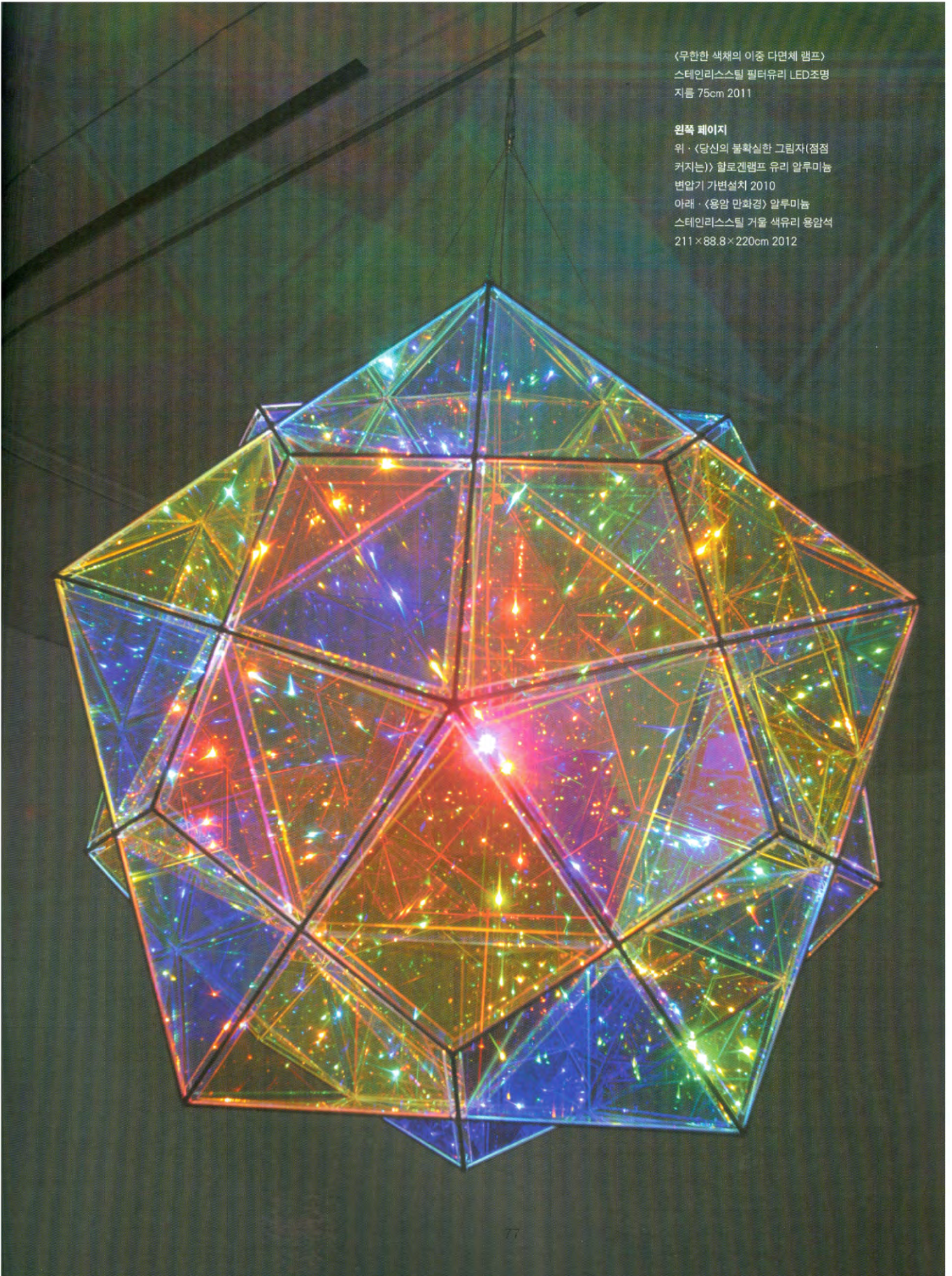
이경민, "OLAFUR ELIASSON 당신의 움직임이 만드는 전혀 다른 변화," <월간미술>, 2012년 5월.

《무한한 색채의 이중 다면체 램프》
스테인리스스틸 필터유리 LED조명
지름 75cm 2011

왼쪽 페이지

위 · 《당신의 불확실한 그림자(점점 커지는)》 할로겐램프 유리 알루미늄
변압기 가변설치 2010

아래 · 《용암 만화경》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거울 색유리 용암석
211 × 88.8 × 220cm 2012



이번 전시 <당신의 불확실한 그림자(Your Uncertain Shadow)> (PKM트리니티갤러리 4.19~5.31)에서 동명의 프로젝트 설치와 <용암 망원경>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2009년에도 <월간미술>과 인터뷰를 했다. 그 이후 대규모 설치나 건축을 주로 선보였는데, 한국에는 아직 당신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소개되지 않았다. 당신의 작업은 관객의 체험을 요구하기에, 한국 관객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번 전시의 주제와 어떤 점에 집중했는지 알려달라. 무엇보다 다양한 작품 경향을 보이고 싶었다. 내 작업의 대부분이 신체성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몸으로 계속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009년 전시와 마찬가지로 갤러리는 큰 공간을 제공했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전시의 주제는 그림자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다. 태양 아래, 길거리에 서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 그림자는 첫째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림자의 모양과 길이를 보면 나는 남쪽과 북쪽이 어딘지, 그리고 대략 몇 시쯤인지도 맞출 수 있다. 나는 시간을 알 방법이 없을 때 한동안 길에 서서 그림자를 보고 몇 시인지를 알아낸다. 그림자는 깊은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둘째로, 더 깊은 관점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내 몸을 형성하는지 평가하게 된다. 그림자극장에서 어린이들은 몸을 움직이며 그림자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점차 그림자가 우리의 몸을 형성한다. 당신이 원하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게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나는 자신의 밖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 큰 관심이 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전시 제목이 시적이기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현대인은 그림자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내가 태양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그림자가 사라진 상태다. 설치작품 <당신의 불확실한 그림자(점점 커지는)>에서 타자와의 관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겹의 그림자는 그런 관계성을 강조한다.

당신은 실험적인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 <Life in Space>와 더불어 에티오피아 고아를 위한 <121 에티오피아>, 태양열 램프를 보급하는 <작은 태양(Little Sun)> 등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진행했다. 당신은 아티스트와 아티스트는 사회에 일종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나는 작품과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참여가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한다.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령 남북한 사이에 가로놓인 철의 장벽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변화를 믿으며 산다. 미술사에서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다. 미술관에

서 작품을 혼자 보는 경험과, 누군가와 함께 보는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나는 집단성이나 상호의존성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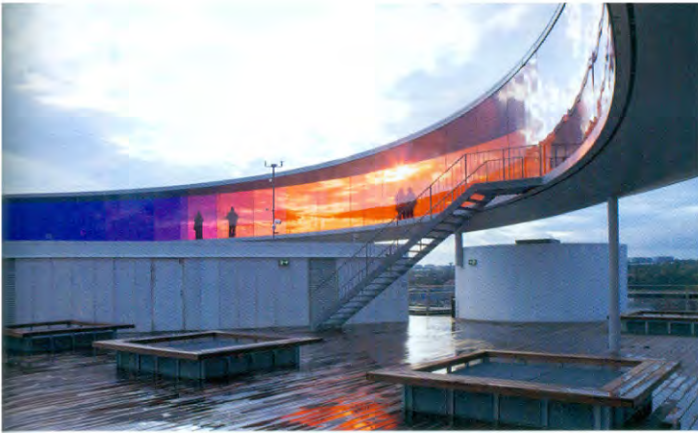
나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나누는 감정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책임감의 부재 등 책임감이라는 이슈를 자주 다룬다. 아주 미세하거나 추상적으로 등장하더라도 말이다. 내 작품은 결코 그저 색채나 빛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아름다움, 신성함 등. 하지만 어떤 이에게 빛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치품이기도 하다. 지구상 인류의 4분의 1인 16억 명이 전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빛을 떠올릴 때 미학적 고찰과 윤리적 고찰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2년 전 한 엔지니어를 찾았다. '필요할 때 빛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나누어줄 것인가' <작은 태양>(www.littlesun.com)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가까이 접근할수록 더 부조리함을 알게 된다. 그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내는 비용의 300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을 수긍할 수 있는가.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작은 태양>의 요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작고 아름다운 조각이어야 한다는 것. 전등의 부속품은 태양 전지와 전구다. 하지만 이 작품을 16억 명에게 보급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내 영역이 아니었던 산업과 시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이를 판매해 빛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것이다. 아주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들이 낮에 충전해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시장은 석유산업이다. 빛과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석유는 비쌀뿐 아니라 환경에도 해롭고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전통적인 석유 램프를 켜고 속제를 한다면, 12개비의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고 한다.

결국 여러 과학자와 제작업체와 상의해 석유보다 10배 저렴하면서도 10배의 빛을 내는 램프를 만들었다. 올해 6월부터 세계에 시판된다. 그전에 5월 중 아프리카에 보급을 시작할 것이다. 각국의 소매업자가 도매가격인 5달러 선에 구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기업이 모든 수익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형식을 띠는 것이다. 소매가는 10달러 미만이 되도록 조정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작품이나 다름없다. '빛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작품 제목에 '당신의(your)'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당신의 작업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성, 커뮤니티, 공공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 '당신의'라는 단어는 '당신이 미술관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미술관을 창조한다'는 제안을 위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미술



〈당신의 무지개 파노라마〉 덴마크 오르후스의 아로스미술관 영구설치 2006-2011
Photo: Thilo Frank / Studio Olafur Eliasson

관이 객관적 역사를 위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미술관은 주관적인 번역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이에 앞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논의해야겠지만 말이다. 미술도 마찬가지로. 관객을 작품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1990년대 초 미대에서 공부한 우리 세대는 당시 현상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현상학을 통해 주관성을 다시 발견하고 소개하는 것에 관심이 컸다. '당신의 무엇'이라는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하고 싶었다. 그저 무엇인가를 보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다. 작품이든 건축물이든 길거리이든 무엇인가를 볼 때, 단지 거기 서서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 그 대상이나 공간을 당신이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다. 보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 때, 책임감이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를 위한 거리가 되어야지, 공간이나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독단적이거나 구조적이고 이성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그런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공적 공간은 협상하고 대화하는 곳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 거리가, 이 공간이 우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덴마크 오르후스의 아로스미술관(AROS Aarhus Kunstmuseum)에 영구 설치된 〈당신의 무지개 파노라마(Your Rainbow Panorama)〉에 대한 질문이다. 이 작품이 사람들이 안에 있긴 밖에도 있긴 간에 그들의 시점과 관점을 어떻게 바꿨다고 생각하는가? 이 작품을 구상할 때 나침반을 떠올렸다. 우리가 공간을 지각하고 숙지하는 능력은 놀랍다. 작품은 색유리로 둘러싸인 원형구조다. 원형은 코너가 없어 방향을 묘사하기가 어렵다. 남, 북을 정확히 가리킬 수도 없고 앞과 뒤도 없다. 색이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걸어서 돌아야 한다. 나는 걷는다는 개념을 좋아한다. 걷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이다. 10m를 걸어가면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또 노란색으로 보인다. 서있을 때는 가능할 수 없던 대상의 규모와 거리 등을 기늠할 수 있다. 〈당신의 무지개 파노라마〉는 걷는 것, 다른 차

원을 감지하는 것에 대한 작품이다.

소비지향적인 우리 사회는 영원성에 집착한다. 이는 좋은 마케팅 수단인 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디자인이다'라는 문구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다. 물리적, 육체적인 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말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적이 생기는 거구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시장은 신제품을 사도록 소비자를 자극해야 하기에 시간이 축적되는 물건에 대한 반감이 있다. 이렇게 견고 시간이 지남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아닐까. 이 작품은 이런 생각을 담은 좋은 예다.

당신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로 움직임, 시간성, 규모와 관객의 참여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다.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시작점을 찾으면, 미대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인지를 자각하고 놀랐다. 당시 나는 투표도 하지 않았다. 사회가 내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컸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자라난 사회는 사실 굉장한 보살핌을 주는 사회였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도 당시의 나와 비슷한 감정을 겪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이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하며 한편으로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한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첫걸음은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이었다. 천천히 깨닫게 된 첫번째는 내가 무감각했다는 것이었다. 이게 '당신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당신을 톡톡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다. 감성적인 기계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기술이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가? 그러다가 보는 것과 감각하는 것의 역사를 공부했다. 우리의 감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공부하면서 육체성, 즉 감각적인 몸에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고 요가, 호흡법 등 몸으로 하는 모든 경험과 실험을 살펴봤다. 심리학도 공부했는데,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우리를 둘러싼 시장중심의 시각문화는 우리의 감각을 증폭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작취하는 데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렇게 몸, 움직임, 시간과 공간 등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내가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게 내 작업의 시작점이다. 모든 것은 매우 개인적인 테서 비롯되지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해온 내내 이 한 가지에 대한 확신은 분명했다. '바로 예술은 중요하다'라는 점 말이다. 예술가와 그 작품은 영원히 남는 것 같다.

계획된 전시나 프로젝트를 알려 달라. 향후 2~3년간 미술관 개인전이 계획되어 있다. 예술가로서 나는 정말 운이 좋다. 할 일이 많고 그만큼 왔다는 집에 감사한다. 당장은 지금 준비 중인 가장 작고도 큰 프로젝트 〈작은 태양〉에 매진할 생각이다. ●